

초기불교 수행 한국에 뿌리내려

(사)한국테라와다불교 창립... 상가라자에 도성 스님 추대

주 '테라와다(Theravada)'는 장로(長老) 또는 연장자의 의미로, 테라와다불교는 주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남방 지역의 불교를 말한다.

1990년대 초부터 남방불교에서 비구계를 받고 수행한 스님들과 재가 수행자들이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테라와다불교(이사장 뽀나와로)가 10월 31일 BBS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한국테라와다불교 창립법회 및 까티나 행사'를 개최했다.

3개월간의 인거를 마친 비구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까티나 축제를 겸해 열린 이날 법회에는 부산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을 비롯해 국내 테라와다불교 스님 20여 명과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개회 타종 및 삼보예찬, 보리수선원장 붓다라카타 스님의 경과 보고, 이사장 뽀나와로 스님의 인사말,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경우 스님, 가산 스님의 축사에 이어 상가라자 추대식 및 법문, 공로패 증정, 자애경 독송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테라와다불교 창립법회에 앞서 10월 29일 기자회견을 가진 이사장 뽀나와로 스님과 붓다라카타 스님, 담마 위하라 스님(오른쪽부터).

법회에서 한국테라와다불교 공동체의 상징인 상가라자에 추대된 도성(뽀나산포) 스님은 1972년 태국 방콕 왓벤자마보딛 사원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스님은 미얀마의 마하시 선원, 태국의 웨웁아숨 위빠사나 명상센터, 스리랑카 비구아일랜드 등에서 수행한 후 귀국해 근본불교를 전하고 있다. 해인사 주지, 대흥사 주지, 조계종 전국본사주지연합회 회장과 태국 마하 쾰라똥톤대학 한국분원 학장을 역임했으며, 2003

년 스리랑카 상가로부터 '삼붓다 사사나 조따까 마하테라'라는 최고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상가라자 추대식에 앞서 뽀나와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한국테라와다불교가 종교단체로 설립된 것을 내외에 알리고 2500여년 전통의 테라와다불교의 고유 행사인 까티나 가사 봉행 법석을 거행하면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전승하며 정통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대중에게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 31일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테라와다불교에는 부산 붓다의길따라선원의 뽀나와로 스님, 경주 마하보리선원의 나나로가 스님, 과천 보리수선원의 붓다라카타 스님, 산청 도성사의 뽀나와로 스님, 봉화 연방축선원의 담마 위하라 법주 스님, 하동 (사)붓다와 함께 이사장 자공 스님, 팔리문현연구소의 마성 스님, 김제의 사사나 스님 등 남방불교에서 비구계를 받은 스님 대부분과 재가 수행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국내에 위빠사나 수행이 전래된 지 20여년만에 이뤄진 이번 한국테라와다불교의 창립은 사실상의 국내 테라와다불교 교단의 태동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테라와다불교 스님들의 선원 운영과 활동이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됐으며, 초기불교의 부처님 법대로 사는 청정수행 가풍의 확산과 위빠사나 명상 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02)517-2841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진각회당외국어학교 스리랑카에 설립

진각종과 스리랑카GO 교육복지재단은 10월 28일 스리랑카GO센터에서 진각회당외국어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르면 진각종은 학교 건립비를 지원하고 교육복지재단 이사회 임원추천권을 갖게 된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 직후 봉행된 기공식을 시작으로 회당외국어학교는 3년 동안 3억 2000여 만원을 투자해 3층 규모에 500여 학생을 수용하는 규모로 건립된다.

진각종은 "외국어학교 시설 내 심인당과 연계해 스리랑카 학생들이 심인진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장은지·김수경양 최우수상 청소년연 제1기 환경학교 모니터요원 시상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총재 현성)는 10월 17일 불교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기 환경학교 청소년 지구환경모니터요원 시상식 및 수료식을 봉행했다.

시상에는 모니터요원 교육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장은지(동대부여중 2) 학생, 김수경(양은중 2) 학생에게 최우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이날 총재 현성 스님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며 "우



제1기 환경학교 수료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

리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제1기 환경학교는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8월 8일~9월 27일 매주 토요일 청소년 지구환경모니터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상연 기자

"10·27 진실규명" 실천승가회 성명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법안, 이하 실천승가회)는 10월 27일 10·27 법난 29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10·27 법난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천승가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과 불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방부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회' 구성으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천승가회는 "기대해왔던 10·27 위원회의 활동이 기념관 부지 선정과 근거 없는 보상금 문제로 휩싸이는 과정을 보며 당혹스러웠다"며 "무엇보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천승가회는 특별법시행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역사적 과제 해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제33대 총무원 집행부도 수많은 중도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방향으로 10·27법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박선주 기자

2010년 귀농을 꿈꾸다 인드라망 제5기 귀농학교 학생 모집

'귀농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제5기 귀농학교 학생을 모집한다. 2010년에 활동할 제5기 현장귀농학교의 입학 지원자격은 이혼과정 및 실업과정의 귀농학교를 마친 사람으로, 모집기간은 2010년 1월까지다.

선발절차는 지원서(자기소개서, 입학원서, 귀농계획서 포함)제출 후

면담과정을 거친 뒤 지역을 선정하고 2010년에 학기가 시작된다.

귀농학교의 교육 내용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사 교육과 실습 △농민, 마을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 자세와 주민들과 관계 맺기 △다룬 지역학교와의 교류, 농사, 대안의료, 발효, 가공, 유통 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는 워크숍을 연 3-4회 갖는다. (02)576-1886 박선주 기자

진흥원·승가대 지원 협약 체결 대원학술기금 매년 1억원 지원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이 10월 28일 마포다보빌딩에서 중앙승가대학교(총장 태원)에 '대원학술기금' 1억원 지원을 협약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민병천 이사장은 "4년제 정식대학으로서 최고 승가 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컸지만 지원을 못해왔다. 크지 않은 액수지만 성의로 받아주길 바란다"며 "총장님 이하 임직원의 노력으로 중앙승가대가 좋은 대학으로 거듭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태원 스님은 "기금으로 승가



대원학술기금 지원협약식을 가진 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과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대의 학풍 진작과 선지식 배양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故 장경호 거사와의 인연이 민병천 이사장으로

이어져 후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총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화답했다.

대원학술기금은 중앙승가대 연구기관(연구자, 학부생, 중앙승가대대원학술상 등에 매년 1억원 지원된다. △부설 연구기관의 학술행사, 연구논문집 발간 △학술 및 신행 증진 장학금 △우수학위논문, 해외유학승, 우수 저서 및 학술 논문 시상 분야에 사용된다.

이상연 기자

한국문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꿈틀이루는사람들 10월 25일 한국문화체험

"오늘처럼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어요.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마헤시·29)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한 발 가까이 지는 시간을 가졌다. 꿈을 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은 10월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3개국 이주노동자 70여명과 함께 경주밀레니엄과



이주노동자들은 삼국시대 왕이나 귀족이 쓰던 왕관을 만들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크와 감포에서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은 화랑 공연을 관람하고 한국 전통음식을 맛보며 한국의 역사를 체험했다. 또 금관만들기, 에밀레타워, 토우공원 등을 거닐면서 가을 정취를 만

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꿈을 이루는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힘든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휴식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박선주 기자

社告

2009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래의 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 포교의 신화를 일구는 스님들

일시: 2009년 10월 27(화)~12월1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광주 동구 KT문화관 대강당

공동주최: 광주불교사모연합회 불교TV 현대불교

1강	10/27	신심과 원력의 길	해인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2강	11/3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	정락스님(前조계종 포교원장)
3강	11/10	도심 속 천년사찰을 깨우다	명진스님(봉은사 주지)
4강	11/17	아름다운 불광공동체	지홍스님(불광사 회주)
5강	11/24	수행,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다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6강	12/1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	청화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법회

소통·화합 그리고 발원

한국불교의 중흥이 시작됩니다.

• 일시 _ 불기 2553(2009)년 11월 5일 오전11시 • 장소 _ 조계사 대웅전 앞

* 화환은 받지 않습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준비위원회